Vol.211
2020. 01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



해외금융투자산업 동향
-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COMPLIANCE NEWS
-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통 계
- 펀드 수탁고
- 채권장외시장통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C·O·N·T·E·N·T·S



해외금융 투자산업 동향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03

01 AI 확산에 따른 자본시장내 승자독식 심화 우려 03

02 ESG 리스크 관련 부정적 이슈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가치 하락 04

03 전 세계적인 IPO 감소 추세 04

04 영국 증시 IPO,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적 기록 06

주요 플레이어 (player) 동향 07

05 Robinhood, 소수점 단위 주식 투자 서비스 제공 07

06 Goldman Sachs,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대중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08

07 Goldman Sachs, 대체투자플랫폼 강화 09

08 페이스북 가상화폐 Libra의 위기 09

09 JPMorgan,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내 합작증권사 설립 승인 10

10 Citigroup, 정치적 불안 속 홍콩에서 기록적인 수익 기록 11

[참고] 미국의 비상장기업 M&A중개 플랫폼 'AXIAL' 소개 12

COMPLIANCE NEWS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15

0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15

0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18

0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 19

04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및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20

통계

펀드 수탁고 22

채권장외시장통계 24

해외 금융투자산업 동향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01 AI 확산에 따른 자본시장내 승자독식 심화 우려 (12/10, FT)

■ 알고리즘이 점차 인간의 업무를 대체해감에 따라 향후 기술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확산

- 자본시장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새로운 투자전략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에 따르면 미국 주식운용 자산의 1/5이 알고리즘기반 펀드인 것으로 추정

■ 정책당국도 이러한 추세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AI가 자본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논의한 美 하원 소위원회는 디지털화로 인해 자본시장내에 '승자독식(winner-takes-all)'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소수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투자기회들을 더 많이 발굴함으로써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
- FICC Market Standards Boards 위원장인 Mark Yallop 역시 머신러닝모델 발달의 혜택은 결국 막대한 예산 투입이 가능한 소수 대형사에만 돌아갈 것이며, 이는 신규회사들에게 또 다른 거대한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 우려

■ 이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빈도매매 시장에서 Virtu Financial, XTX Markets 등 소수 대형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repo시장, 파생상품 시장 등도 유사한 상황

- 실제 최근 발표된 논문(Albert Menkveld & Boyan Jovanovic)에 따르면,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수가 급격히 감소 추세인 가운데, S&P500 ETF의 경우 시장거래를 촉진시키던 기관수가 '07년 50여개에서 '18년 10개로 감소

02 ESG 리스크 관련 부정적 이슈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가치 하락 (12/14, FT)

■ Bank of America에 따르면,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부정적 이슈로 인해 지난 5년간 미국 대기업들의 기업가치가 5,000억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

- BOA가 회계 스캔들, 데이터 유출, 성희롱 사건 등 ESG 관련 24개 부정적 이슈가 S&P500 지수 편입기업의 주가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이슈에 관련된 기업들은 5,340억달러 규모의 기업가치 하락을 기록
- BOA 투자전략 책임자인 Savita Subramanian는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인한 시장가치 하락은 오랜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밝히며, 동 이슈가 발생한 후 주가가 안정되기까지 대략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지적
- ESG 펀드는 논란이 되는 주식을 포트폴리오에서 신속히 제외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단기간내 다시 투자를 재개하는 개인투자자들과 달리 펀드들의 경우 제외 기간이 5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

03 전 세계적인 IPO 감소 추세 (12/30, FT)

■ Dealogic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증시 강세에도 신규 상장건수는 1,237건에 불과,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IPO공모액 또한 '18년대비 10% 감소한 1,888억달러를 기록

- 이에 비해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 사모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 가장 큰 폭의 IPO 하락세를 보인 곳은 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동 시장의 IPO건수는 2018년에 비해 40% 감소한 179건에 머물렀으며, 이는 7년 만의 최저치
- 컨설팅사 EY의 글로벌 IPO 부문장 Paul Go는 브렉시트 장기화 역시 기업공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IPO시장인 영국 증시의 상장 건수가 전년대비 62%나 감소했다고 분석

■ 2019년 IPO 시장 특징으로는 “유니콘 기업”들이 시장 기대와 달리 고전했던데 반해, Beyond Meat 등 작은 규모의 딜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

- 각광받았던 유니콘 기업의 실패사례로는, Uber가 지난 ’19.5월 상장 후 가격이 1/3 가량 하락한 바 있으며, WeWork의 경우 지난 9월 투자자들의 투자 중단으로 예정된 IPO를 철회하였음

■ 글로벌 시장 위축세와 달리 중국 IPO 시장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홍콩시장 상장을 포함한 IPO 건수는 289건으로 전년대비 약 2/3 수준 증가

- 이는 지난 7월 Shanghai STAR 시장이 개장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해외 상장을 추진했을 기업들을 국내로 집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

■ 그러나 IPO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19년 상위 100대 IPO는 투자자들에게 20.4%의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대표적인 미국 IPO 관련 ETF인 Renaissance Capital ETF 역시 ’19년 33.6% 수익률을 기록

- JP모건의 TMT ECM부문장 Greg Chamberlain는 안정적인 테크 기업 중 2020년 IPO를 앞두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올 한해 동 시장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 전망

04 영국 증시 IPO,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적 기록 (12/26, FT)

- 2019년 런던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기업은 총 34개로 전년 대비 62% 감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평균 IPO 감소폭 19%보다 더 큰 것임

- 이러한 영국 IPO 시장 위축의 배경에는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악화와 함께 영국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불안정성 우려가 컸던 것으로 분석
  - 영국 주식중개업체 Olivetree의 Bella Brandon 이사는 "19년 브렉시트 협상 결과와 '19.12월 총선결과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자가 영국 시장에 큰돈을 투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다"라고 설명

- 한편, 영국 증시 성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했다는 점도 불황을 이끈 원인으로 분석
  - 2019년 독일 DAX 지수는 26%, 미국 S&P는 28% 상승한 반면, 영국 FTSE100의 연간 상승률은 13%에 불과

- 그러나 일부에서는 총선을 통해 브렉시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2020년부터는 다시 런던IPO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나타내기도 함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05 Robinhood, 소수점 단위 주식 투자 서비스 제공 (12/13, techcrunch)

■ 미국의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Robinhood는 소수점 주식(fractional share) 투자 매매 서비스를 개시

- 소수점 주식매매 서비스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중 주당 1달러 이상이며 시가총액 2,500만달러이상인 4천여 종목의 주식 및 ETF에 대하여 0.000001주 또는 최소 1달러에 해당하는 소수점 단위의 분절된 주식을 무료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소수점 주식매매 서비스는 Square Cash가 먼저 선보였으나, 최소 투자금액과 수수료 측면에서 Robinhood가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고 있음

■ Robinhood의 공동대표 Vlad Tenev는 Amazon 주식의 주당 가격이 1,700달러로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고가의 주식이라며, 소수점 주식 매매가 주식투자의 대중화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

- Robinhood는 '참여가 힘이다(participation is power)'를 모토로 일반 대중이 자본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수수료 또는 계좌 최저예치금 등과 같은 장벽을 깨기 위해 노력해왔음

- 특히, Robinhood 이용자의 50%가 주식투자를 처음하는 투자자이고, 이용자 나이의 중위값이 30세인 등 소수점 주식매매 서비스가 이러한 뉴제너레이션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강조

■ 한편, Robinhood는 지금까지 9.1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플랫폼 사용자가 1천만명에 이르는 핀테크 회사로 성장하며 기존의 온라인 브로커리지 Charles Schwab, E*Trade 등과 수수료 인하 및 무료 경쟁을 촉발시켰음

- 시장관계자들은 Robinhood의 금번 소수점 주식매매 투자서비스가 미국 브로커리지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함

06 Goldman Sachs,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대중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12/9, FT)

■ Goldman Sachs는 2020년 중 최소 5천달러 이상의 소액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

- 동 서비스 제공은 Goldman Sachs가 지난 5월 7.5억달러에 인수한 자산관리회사 United Capital이 중심이 될 예정인 가운데, United Capital의 창립자 Joe Duran은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준비중이라고 밝힘

- 동 서비스의 최소 투자금액은 아직 미정이나, 5천달러 이상이면서 소액투자를 원하는 투자자 니즈에도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

  * Goldman Sachs의 기존 자산관리서비스 대상이 1백만~1천만달러의 고액자산가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대중화된 수준

- Goldman Sachs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대중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가 미래 고객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성격이라 강조하며, 무엇보다 일반대중에게 Goldman Sachs의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 언급

■ 한편 Goldman Sachs CEO David Solomon은 1.29일 예정된 '투자자의 날'에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에서 대중 자산운용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및 자산관리 비즈니스 강화, 외부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와 대출 업무 확대 등 동 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계획

  * Goldman Sachs는 Marcus를 통하여 이미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가계를 대상으로 저축계좌와 개인대출을 수행 중

07 Goldman Sachs, 대체투자플랫폼 강화 (12/17, FT)

■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고의 대체투자회사인 Blackstone과 유사한 대체투자부문(alternative investments group)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규모, 조직구조 등 상세정보는 1월 29일 예정된 Investors Day에 공개한다는 계획

- 신설되는 대체투자부문은 사모주식, 사모부채, 인프라스트럭처 등과 더불어 기존 골드만삭스의 투자관리부문에서 담당한 공동투자·펀드사업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알려짐

■ 골드만삭스 CEO David Solomon은 금번 대체투자조직 강화가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내부에서는 기업가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

- David Solomon은 취임 이래 개별 사업라인이 아닌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관계관리(total relationship)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조직 신설이 골드만삭스가 추구하는 "통합적인(holistic) 서비스"와 "One Goldman Sachs" 강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

08 페이스북 가상화폐 Libra의 위기 (12/26, FT)

■ 변동성이 심하고 접근성이 낮은 비트코인 등과 달리, 28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은 새로운 가상화폐인 'Libra'를 출시하기 적합한 주체로 평가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왔음

- Libra 출시와 관련하여 글로벌 상거래를 교란시키고, 중앙은행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하나, 은행 접근성이 낮았던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가상지갑이 되어 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던 상황

-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전체 수익의 약 98%가 광고로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성장이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서비스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음

- 페이스북은 궁극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화폐를 주고받는 모델을 추구하며 Libra 연합에 마스터카드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동 프로젝트가 단지 페이스북만의 것이 아님을 강조해왔음

■ 그러나 페이스북의 일련의 데이터 관련 스캔들과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인해 Libra 프로젝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에 부딪힘

- 이에 더하여 규제당국은 Libra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28개 연합 창립멤버 중 7개 기업이 철회하면서 2020년 출시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황

■ 이로 인해 페이스북의 Libra는 본래 추구했던 새로운 가상화폐로서가 아닌, 기존의 결제기능을 Facebook Pay라는 단일 창구로 통합하는 형태로 축소

- 대형 테크기업들의 금융서비스 확장이 가속화되고는 있으나, 페이스북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시스템을 흔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금융서비스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타업종 대비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평가

09 JPMorgan,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내 합작증권사 설립 승인 (12/19, FT)

■ 美中간 1단계 무역합의가 타결된 가운데, JP모건은 중국 증감위로부터 지난 12월 18일 미국계 투자은행으로는 처음으로 50% 이상 출자한 중국내 합작증권사 설립 허가를 득함

- 현재 외국계 기업이 중국내 증권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합작증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2018년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계 기업의의 출자비율을 49%에서 51%로 상향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UBS와 노무라증권은 각각 2018년말과 최근에 증권 자회사 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나, JP모건은 '18.5월 자회사 설립을 신청한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승인이 보류되어 왔음

■ 금번 설립 인가로 JP모건은 중국내에서 유가증권 중개, 투자자문, 언더라이팅 등 종합적인 증권사업 영위가 가능해진 가운데, JP모건 회장 Jamie Dimon은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동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 발표

10 Citigroup, 정치적 불안 속 홍콩에서 기록적인 수익 기록 (12/24, FT)

■ 씨티그룹은 최근 수개월 간 폭력적인 시위 등 정치적 불안정에 빠진 홍콩시장에서 올 한 해 전년대비 8% 이상의 수익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

- 씨티그룹의 홍콩-마카오 법인의 최고 경영자 Angel Ng은 "홍콩은 중국 으로의 최고의 관문이며, 홍콩에서 성공하면 아시아에서 성공한다."라고 언급하며 홍콩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
- 씨티그룹 홍콩시장 수익의 10~20%는 중국 기업을 포함한 Fortune 500개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콩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 모닝스타의 Eric Compton 이사는 장기적으로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이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생존력이 훼손된다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 올 것"이라고 밝힘
- 홍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과 9월 사이 홍콩도시 방문자 수가 5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 미국의 비상장기업 M&A중개 플랫폼 'AXIAL' 소개

(개요)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중개특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뉴욕 소재)의 플랫폼 핀테크 회사

* 2009년 설립된 비공개기업으로 총 펀딩규모는 3,300만 달러이며, 연간 수익은 1,100만 달러 규모(現임직원수는 100명 내외)

- 회원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매수자(buy side)와 매도자(sell side)를 투자은행의 중개 없이 알고리즘으로 매칭
  - 알고리즘은 금융, 지리, 키워드 등 2만개 이상의 카테고리와 서브섹터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 중개 대상 주요 비상장는 연간 수익규모(revenue) 5백만달러에서 1.5억달러 사이의 중소·중견기업

* Axial은 '10~'17년사이 총250억달러(2천건 이상)의 M&A를 성사

(이용자) 기업의 CEO 및 CFO, PEF, 투자은행, 자문사, 가족기업, 투자자(대부자) 등 현재 1.1만개 이상의 그룹이 회원으로 가입

- 이들은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은 매각, 경영권 인수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 지분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플랫폼을 활용
- 특히, 투자은행, 자문사(어드바이저) 등은 자사고객(매수·매도자)의 요청에 대한 다양한 거래상대방 확보를 위하여 Axial을 활용

* 현재 3,400개의 투자은행과 자문사가 Axial을 이용중이며 그 중 주요회사로 Stephens, KPMG, 41 North Partners, Allegiance Capital, Copper Run Capital, Capstone Headwaters, Hilliard Lyons and Roth Capital 등 있음

(주요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M&A등 중개, 회원간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 등

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M&A 중개 업무 프로세스

① 매수자, 매도자 정보 입력
- 매수자는 자신의 투자지침·조건·희망 사항 등을, 매도자는 회사정보 및 딜-목적 등 기본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② 자동 알고리즘으로 거래상대방 추천
- 매도자의 의뢰를 기본으로 Axial의 자동 알고리즘이 매수자의 투자지침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거래상대방들을 추천

③ 최적 거래상대방 선정
- 추천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합성과 자격 등을 바탕으로 평가 후, 최적 거래상대방을 선정

④ 딜-티져 리뷰 및 NDA 작성
- 최적 거래상대방인 매수자에게 매도자의 딜-티져를 발송, 매수자는 딜-티저를 리뷰한 후 관심있는 딜에 대하여 비밀유지서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작성

⑤ 본격 협상 진행
- 매도자가 업로드한 비밀정보제안서(Confidential Information Memo- randum)에 매수자가 접근하여 본격적인 M&A협상 진행

나. 회원간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

- 회원 초청 네트워킹 이벤트(전국적, 지역적, 산업별)를 개최하여 즉석에서 M&A, 투자 관련 홍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중개로 연결
  - 매 이벤트 마다 매수자, 자금 공급자, 비상장 중소기업 등 참석자의 비율을 사전에 조정하여 최고의 네트워킹 성과 도출을 추구

2017 시카고 Axial 네트워킹 이벤트

- 125그룹이 참석(sell-side 55%, buy-side 45%) 하여 750회 미팅 개최, 160건 이상의 딜 협상이 진행
- 실제 참석한 회사의 규모는 10만달러~5억달러까지 다양(평균 2300만달러)

해외 금융투자산업 동향 문의

기획조사실 **서영미** 차장
(ymseo@kofia.or.kr, 2003-9034)

COMPLIANCE NEWS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0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2019.11.20.)

1.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 이수시간 변경 등

가. 개정 배경

■ 금융위는 2019.5.30.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이에 따라, 개인일반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모의거래 시간을 줄이고,

※ 사전교육 : (현행) 20시간(옵션매도시 추가 10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모의거래 : (현행) 50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도입취지와 달리 적용되고 있던 재이수 요건을 폐지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개정 주요내용

■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 이수시간 변경 및 재이수 요건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2-5조의3)

다. 시행일

■ 2019년 12월 2일

2.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 사항 반영

가. 개정 배경

■ 법령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여 오던 협회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각 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2019.8.20. 개정, 2019.11.21. 시행)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 및 제1-8조(2019.11.20. 개정) 개정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 근거 삭제

■ 진입요건 완화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나. 개정 주요내용

■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지정 및 지정말소, 전문투자자 분류, 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의 유지 등 전문투자자 관련 조문 중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관련 사항 삭제(제2-12조 내지 제2-15조 및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 개인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위험고지 및 금융투자회사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2년) 신설

-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위험(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미적용)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녹취'토록 규정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시(제2-13조의2제1항)
-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위험(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미적용)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규정
  -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는 경우(제2-14조제3항)

    * 지정 심사 회사에서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자가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지참하여 다른 회사에 전문투자자 대우를 요청하는 경우
  - 개인전문투자자에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에 따른 녹취대상상품*, 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른 신탁계약*,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제2-14조제5항)

* (1) 파생결합증권(단, 금적립계좌, 파생결합사채 등은 제외)
(2)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1)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LF, DLF 등)
(3) (1) 및 (2)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ELT, DLT 등)

【 (요약)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위험고지하는 경우 】

구 분	심사 회사	타 회사
(1) 지정 심사	녹취	–
(2) 전문투자자 분류	서면	서면
(3) 녹취대상상품 등 투자권유	서면	서면

- 금융투자회사가 지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효력기간을 2년으로 제한(제2-13조의2제2항)

다. 시행일

2019년 11월 21일

3.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가. 개정 주요내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19.9월, 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용어 변경 등 조문 정비

※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투자자가 금전의 융자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보 대상에 기존 예탁증권에 더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이 추가되어 금융투자업규정(§4-21)이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사항 반영

- (개정 전) 예탁증권 담보융자 → (개정 후) 증권담보융자

나. 시행일

2019년 11월 21일

0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2019.12.17.)

1. 개정 배경

■ 금융감독원은 연금가입자의 합리적인 연금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연금저축 비교공시 정보를 검토하고 관련 항목을 정비

- 연금저축 비교공시와 관련된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 개정('19.11)에 따라 변경 항목을 영업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연금저축 비교공시 항목 및 공시방법 개정**

- **(공시항목)**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 등을 삭제하고,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연금저축펀드 판매 정보 신설

주 체	현 행	개 정
집합투자회사	•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	•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 수수료 • 연금저축계좌별 유지율 및 계좌이체수수료	• 연금저축펀드 판매 정보

- **(공시방법)** 협회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병행 공시하던 방식을 협회 공시로 일원화

3. 시행일

■ 2019년 12월 18일

- 다만, 제4-7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년 4분기말 기준의 공시부터 적용

0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19.12.17.)

1. 개정 배경

■ 약관 제·개정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원칙적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령 개정(시행: '20.1.1.) 사항을 규정에 반영

2. 개정 주요내용

1 약관의 보고(신고) 관련 사항 반영(§4)

- 개정 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약관의 원칙적 사후보고와 예외적 사전신고(§4) 관련 절차를 반영
  - 현행은 원칙적 사전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원칙적 사후보고와 예외적 사전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

2 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6, §8③)

- 현행은 법 개정전 사후보고 사유를 법 내용 그대로 명시하였으나, 개정 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개정안은 이를 정비(§6)
- 법 제56조 제5항의 신고수리 내용 반영 등(§8③)
  - 현행은 사전신고 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통보'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과 수리 후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을 추가

3.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04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2019.11.27.)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및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2019.12.23.)

1.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시간 축소 등에 따른 조문 정비(§6)

- **(개정 내용)** 교육 및 모의거래과정 이수시간 축소 등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규정 개정사항 약관 반영
  - 수탁거부 사유 중 협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 개정 사항 반영(제6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

기본예탁금 예탁의무 면제 대상 계좌 확대(§7)

- **(개정 내용)**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대한 기본예탁금 예탁의무 면제를 약관 반영

시행일 : 2019년 12월 2일

2.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연금계좌 가입일 기준 변경(§3)

- **(현행 및 문제점)** 계좌의 가입일 기준 산정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간 가입일 적용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에 있어,

* 연금저축계좌는 계좌개설일,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입금일 기준으로 대부분 적용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16②1호)한데, 각각 다른 가입일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여 가입일 기준 정비 필요

⇨ **(개정)** 계좌의 가입기간을 연금납입액이 최초 입금된 날로 기산, 다만 기존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개정조항임을 고려하여 가입일 기준 적용은 시행일('20.1.1)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매매거래 등의 통지 조항 신설(§9①2호, §9①3호바목)

- **(현행)** 매매명세의 통지방법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필요

  ⇨ **(개정)**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관련 조항 신설

매매거래 등의 통지 조항 삭제(§9③)

- **(현행)** 금투업규정(§4-37①)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필요

  ⇨ **(개정)**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내역 통지관련 조항 삭제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3. 수익증권저축약관

매매거래 등의 통지 조항 신설(§9①2호) **및 매매거래 등의 통지 조항 개정**(§9①3호, §9③)

⇨ **(개정)**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과 개정 배경 및 개정 내용 동일

기 타(§6⑤·⑦, §9①3호, §15③, §20①)

- 약관의 용어 명확성을 위해 약관 용어 통일(고객 → 저축자)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COMPLIANCE NEWS 문의

자율규제기획부 **경필구** 대리
(feel9@kofia.or.kr, 2003-9713)

통 계 (Statistics)

Ⅰ 펀드 수탁고

01 전체펀드 설정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9.9월말	'19.10월말	'19.11월말	'19.12월말	전월말대비	증감률(%)
설정액	(1) 주식형펀드 소계		79,350	79,771	81,455	87,709	+6,254	+7.7%
		(1-1) 국내주식형	60,668	60,988	62,641	68,815	+6,174	+9.9%
		(공 모)	49,873	50,442	52,204	58,487	+6,283	+12.0%
		(사 모)	10,795	10,547	10,437	10,328	△109	△1.0%
		(1-2) 해외[1]주식형	18,682	18,783	18,814	18,894	+80	+0.4%
		(공 모)	14,209	14,135	13,946	13,786	△160	△1.1%
		(사 모)	4,473	4,648	4,868	5,108	+240	+4.9%
	(2) 채권형펀드 소계		122,372	121,206	120,382	117,451	△2,931	△2.4%
		(2-1) 국내채권형	113,049	111,664	110,771	107,920	△2,851	△2.6%
		(공 모)	35,100	34,068	32,570	30,465	△2,105	△6.5%
		(사 모)	77,949	77,596	78,201	77,455	△746	△1.0%
		(2-2) 해외채권형	9,323	9,542	9,611	9,531	△80	△0.8%
		(공 모)	3,546	3,743	3,713	3,627	△86	△2.3%
		(사 모)	5,777	5,799	5,898	5,903	+5	+0.1%
	(3) 혼 합 주 식 형		9,795	9,739	9,695	9,584	△111	△1.1%
	(4) 혼 합 채 권 형		16,467	16,235	16,088	15,712	△376	△2.3%
	(5) 재 간 접		32,035	32,322	32,676	33,217	+541	+1.7%
	(6) 단기금융(MMF)		102,195	115,439	120,642	104,861	△15,781	△13.1%
		(법 인)	81,321	94,688	99,460	83,032	△16,428	△16.5%
		(개 인)	20,874	20,751	21,182	21,828	+646	+3.0%
		(구 법)	0	0	1	1	+0	-
	(7) 파생상품		53,713	53,360	52,413	50,809	△1,604	△3.1%
	(8) 부 동 산		91,959	94,421	96,732	98,338	+1,606	+1.7%
	(9) 특별자산		87,421	88,952	90,554	93,182	+2,628	+2.9%
	(10) 혼합자산		35,709	36,720	37,126	38,755	+1,629	+4.4%
	설 정 액 총 계		631,026	648,176	657,772	649,629	△8,143	△1.2%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 중 펀드재산의 30%이상을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이하 같음)

02 전체펀드 순자산

(단위 : 십억원)

구분		'19.9월말	'19.10월말	'19.11월말	'19.12월말	전월말대비	증감률(%)
순자산	(1) 주식형펀드 소계	77,338	78,194	80,196	88,822	+8,626	+10.8%
	(1-1) 국내주식형	57,014	57,479	59,203	67,324	+8,121	+13.7%
	(공 모)	47,487	48,143	49,939	57,576	+7,637	+15.3%
	(사 모)	9,528	9,336	9,264	9,748	+484	+5.2%
	(1-2) 해외주식형	20,323	20,714	20,993	21,498	+505	+2.4%
	(공 모)	15,636	15,837	15,731	15,950	+219	+1.4%
	(사 모)	4,687	4,877	5,262	5,548	+286	+5.4%
	(2) 채권형펀드 소계	124,928	123,202	122,269	119,046	△3,223	△2.6%
	(2-1) 국내채권형	115,221	113,340	112,532	109,515	△3,017	△2.7%
	(공 모)	36,251	35,052	33,520	31,294	△2,226	△6.6%
	(사 모)	78,970	78,288	79,012	78,221	△791	△1.0%
	(2-2) 해외채권형	9,706	9,862	9,737	9,531	△206	△2.1%
	(공 모)	3,735	3,935	3,905	3,733	△172	△4.4%
	(사 모)	5,971	5,926	5,831	5,798	△33	△0.6%
	(3) 혼 합 주 식 형	9,473	9,463	9,418	9,510	+92	+1.0%
	(4) 혼 합 채 권 형	16,654	16,404	16,259	16,060	△199	△1.2%
	(5) 재 간 접	34,603	34,841	35,759	36,582	+823	+2.3%
	(6) 단기금융(MMF)	103,237	116,600	121,755	105,588	△16,167	△13.3%
	(법 인)	82,218	95,690	100,392	83,639	△16,753	△16.7%
	(개 인)	21,018	20,910	21,362	21,974	+612	+2.9%
	(구 법)	0	0	1	1	+0	-
	(7) 파생상품	52,566	52,734	51,792	51,232	△560	△1.1%
	(8) 부 동 산	94,179	96,639	98,911	100,811	+1,900	+1.9%
	(9) 특별자산	86,851	88,204	90,076	92,490	+2,414	+2.7%
	(10) 혼합자산	35,506	36,310	36,820	38,643	+1,823	+5.0%
순 자 산 총 계		635,344	652,599	663,264	658,793	△4,471	△0.7%
펀 드 수		15,520	15,371	15,321	15,205	△116	△0.8%

(자료 : 금융투자협회)

Ⅱ 채권 장외시장 통계

01 발행시장

(1) 발행통계

(단위 : 십억원)

구분	발행액			잔액	
	'19. 11월	'19. 12월	전월대비	'19. 12월	비중(%)
국채	8,842	4,179	-4,663	688,083	34.1
지방채	1,002	617	-384	21,342	1.1
특수채	7,740	10,425	2,685	332,274	16.5
통안증권	10,820	10,270	-550	164,060	8.1
은행채	12,680	5,010	-7,670	308,635	15.3
기타금융채	5,411	4,939	-472	161,615	8.0
회사채	4,260	4,320	60	290,113	14.4
ABS	2,066	5,066	3,000	49,611	2.5
계	52,821	44,826	-7,995	2,015,733	100.0

* 상기통계는 원천정보 업데이트 관계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신용등급별 수요예측 결과

(단위 : 십억원)

구분		'19. 10월	'19. 11월	'19. 12월
AA급 이상	발행예정금액	3,000	8,400	310
	참여율(%)	373	249	287
A급	발행예정금액	1,500	2,100	110
	참여율(%)	244	234	117
BBB급 이하	발행예정금액	200	300	-
	참여율(%)	100	207	0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참여율 : 발행예정금액 대비 수요예측시 참여금액 비율
2) 수요예측시작일 기준

02 유통시장 (장외채권거래현황)

(1) 채권종류별 거래대금

(단위 : 십억원)

구분	'19. 11월	'19. 12월	전월대비	연간누계	2018년
국채	177,651	156,446	-21,206	2,288,917	2,300,483
지방채	1,976	916	-1,060	11,617	8,994
특수채	24,361	24,149	-212	220,238	220,053
통안증권	83,282	66,704	-16,578	939,520	1,192,440
은행채	46,469	38,816	-7,653	576,328	522,811
기타금융채	29,232	33,206	3,974	358,243	277,136
회사채	11,404	10,391	-1,014	170,167	140,932
ABS	11,913	16,900	4,987	120,499	73,877
합계	386,288	347,527	-38,762	4,685,530	4,736,726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9. 11월	'19. 12월	전월대비	연간누계	2018년
은행	13,810	17,423	3,613	185,303	154,301
자산운용	10,031	4,837	-5,194	118,844	110,543
보험	4,039	1,868	-2,171	31,326	24,499
기금·공제	-199	4,843	5,042	22,809	37,180
외국인	1,669	3,786	2,117	56,207	54,154
개인	229	79	-150	3,753	4,319
기타	4,248	2,891	-1,357	51,795	32,125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유통시장을 통한 외국인 순매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만기상환 금액을 고려한 통계(순투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기타 : 선물, 종금, 상호, 국가, 지자체, 기타법인

03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일자	국고채권 (3년)	국고채권 (5년)	국고채권 (10년)	국고채권 (30년)	국고채권 (50년)	통안증권 (91일)	통안증권 (1년)	회사채 (무보증3년) AA-	회사채 (무보증3년) BBB-	CD (91일)
2018년말	1.817	1.884	1.948	1.927	1.922	1.760	1.840	2.287	8.358	1.93
2019년 1월	1.809	1.883	2.001	2.048	2.036	1.751	1.827	2.256	8.340	1.86
2019년 2월	1.813	1.876	1.987	2.053	2.026	1.766	1.843	2.261	8.337	1.89
2019년 3월	1.690	1.708	1.833	1.865	1.842	1.747	1.763	2.163	8.236	1.90
2019년 4월	1.699	1.728	1.845	1.869	1.862	1.738	1.745	2.171	8.245	1.84
2019년 5월	1.587	1.605	1.682	1.719	1.714	1.647	1.632	2.075	8.151	1.84
2019년 6월	1.472	1.506	1.596	1.631	1.625	1.575	1.547	1.967	8.075	1.78
2019년 7월	1.292	1.323	1.390	1.368	1.367	1.459	1.389	1.803	7.904	1.50
2019년 8월	1.168	1.232	1.276	1.268	1.269	1.277	1.177	1.693	7.795	1.49
2019년 9월	1.297	1.352	1.456	1.420	1.420	1.297	1.333	1.8	7.903	1.55
2019년 10월	1.466	1.583	1.728	1.690	1.690	1.322	1.400	1.973	8.083	1.44
2019년 11월	1.385	1.475	1.630	1.554	1.555	1.326	1.389	1.922	8.034	1.53
2019년 12월	1.360	1.480	1.683	1.682	1.682	1.325	1.369	1.937	8.049	1.53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월말 기준

04 채권 ETF

(단위 : 백만원)

채권 실시간 지수		ETF		
		종목명	일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국고채지수	MKF 국고채 지수	KODEX 국고채	4,405	136,800
통안채지수	MK 통안채 지수	KOSEF 통안채	9,631	95,897
	KIS MSB 3M 지수	TIGER 유동자금	603	665,633
	KIS MSB 5M 지수	KBStar 단기통안채	28,274	129,102
특수채지수	MK 머니마켓 지수	KOSEF 단기자금	30,529	37,710
회사채지수	KOBI 크레딧 지수	KBStar 우량회사채	978	101,345
	KOBI HALF 크레딧 지수	ARIRANG 우량회사채 50	451	10,681
혼합지수	KRW CASH 지수	KODEX 단기채권	2,081	1,104,108
	KAP 머니마켓 지수	ARIRANG 단기유동성	81	31,010
	KIS MSB 단기지수	KINDEX 단기자금	78	146,961
	KRW CASH PLUS 지수	KODEX 단기채권PLUS	965	807,125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실시간 호가정보(K-BOND)를 통해서 산출되는 채권 실시간 지수를 채권형 ETF의 추적지수로 활용
2) '19. 12월 일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 '19. 12월말 기준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
Vol.211
2020. 01

발 행 월 : 2020. 1
발 행 인 : 나 재 철
편 집 인 : 김 진 억
발 행 처 : 금융투자협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대 표 전 화 : 02)2003-9000